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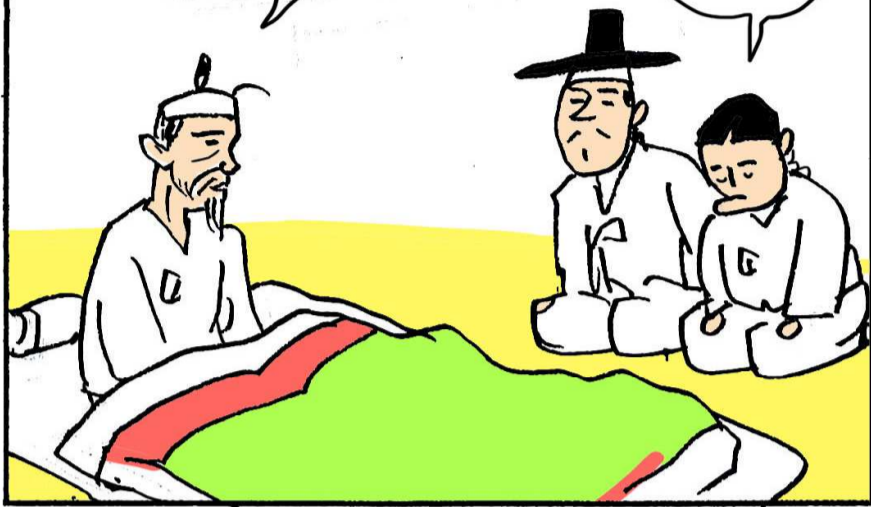
4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1570년 겨울)



12월 3일 집안 조카 영에게 명했다.

다른 사람의 책을  
일일이 찾아 빠짐없이  
돌려주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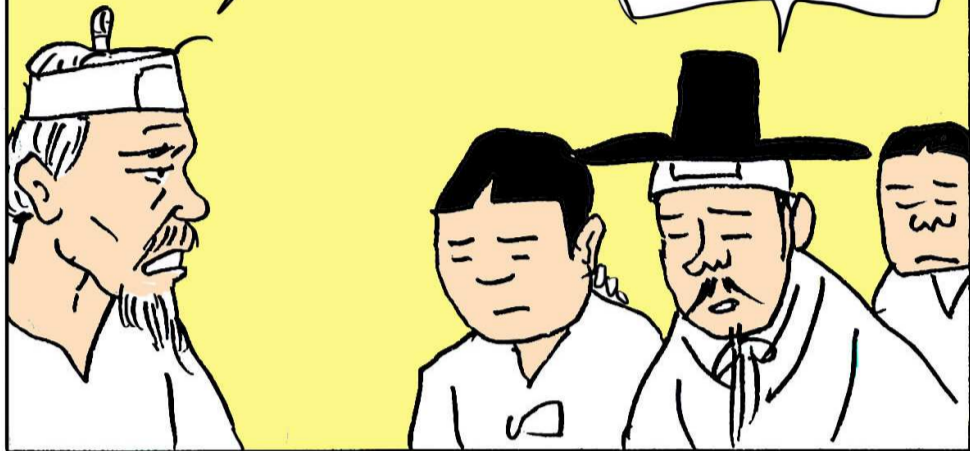
예!



12월 4일 마지막 유계를 받아 적게 했다.

꼭 내말대로  
해야한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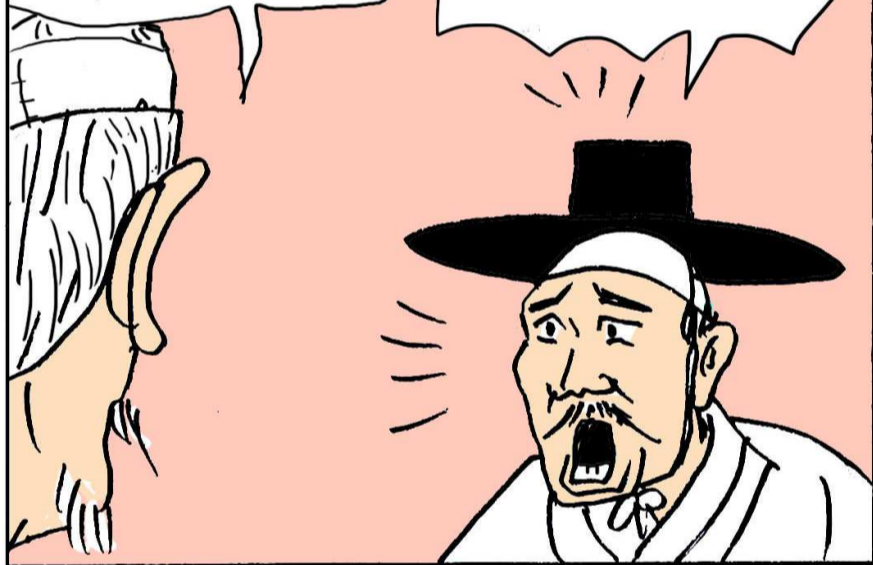
첫째, 예장은 사양해라.

둘째, 기름과 꿀로 만든  
사치스러운 과자는  
쓰지 말라.

셋째, 비석을 세우지 말라.  
작은 돌의 앞면에  
퇴陶晚隱眞城李公之墓  
라고만 겨라.

이제 제자들을  
들어오도록 해라.

안됩니다!



죽음과 삶의 사이이니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다. 남아 있을  
시간이 얼마 없으니 제자들을  
들어오게 해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봤다.

선생님이 가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12월 8일 아침에 퇴계는 그동안  
아끼고 정들었던 매화에 물을  
주게 했다.



오후 5시경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흰구름이 집 위에 모이더니  
눈이 내렸다.



나를 일으켜  
앉혀다오.

예, 아버님



퇴계는 앉아서 눈을 감더니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좌탈입망한 것이다.

아버지!

할아버지!

선생님!



곧 구름이 흩어지고 눈이 개었다.

